

2008년 10월 23일 목 말씀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10월 달 11월 달까지는 바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농사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사지으면 농사짓는 사람도 바쁘지 않습니까? 12월 달은 정리하느라 바쁩니다. 교회나 사회나 모든 정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그제 어머니 생신이었는데도 몰랐습니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좀 좋아졌다고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바쁩니다.

늘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상황을 모르니까 힘이 안 납니다.
나에게 자꾸 관심을 가져줘야 나도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늘이 아쉽습니까? 땅이 아쉽습니까? 강자가 아쉽습니까? 약자가 아쉽습니까? 걸어가는 사람이 아쉽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아쉽습니까? 나는 아쉬운 것 없습니다. 늘 지도자한테 잘 한다고만 하니까 ‘그래? 잘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나에게 보고 안하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라고 나에게 쫓아와 봐달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 손이 짧아서 못 도와줍니다. 당지도 않습니다. 멀리 도와주니 기도 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보십시오. 내가 매일 말까지 하게 해달라고, 정신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정신이 확 돌아와 나만 찾는 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전엔 정신이 안돌아 왔었는데 이제 정신이 돌아오셨습니다.

나 나가면 지도자들 안 만날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얼마간은 계획을 해놨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있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말씀 받고 거기서 세계로 방송하고 돌아가려 합니다. 지도자들이 자꾸 채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르는 사람이 훨씬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뛰었는지 보십시오.

회원들은 지도자 따라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밑의 사람들이 볼때 답답하게 가면 안 됩니다. 할 것 해주고 위와도 통하고 하늘과도 통하고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계, 육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잘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좁은 곳에서도 2천리를 뛰었습니다. 제일 많이 뛴 것 같습니다. 거의 치타같이 뛹니다. 아무리 뛰어도 숨이 가쁘지 않습니다.

불경기에 사업 너무 벌리면 안 됩니다. 벌리면 찢어집니다.

옛날에 전주에서 진산까지 150리길을 걸어다녔습니다. 두 시간 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땐 60년대였고 밤에 차가 없었으니까요. 자갈길을 걸어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12시에 걸어서 3시에 도착하면 날이 환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